

Beatles

THE BEATLES

1960년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결성된 록 밴드이다. 1962년에 존 레논(리듬 기타, 보컬), 폴 매카트니(베이스 기타, 보컬), 조지 해리슨(리드 기타, 보컬), 링고 스타(드럼, 보컬)로 멤버가 확정. 비틀즈의 음악은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1960년대의 사회 및 문화적 혁명을 야기하기도 했다.

비틀즈는 1970년까지 총 12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했고, 세계적으로 10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려 가수 중엔 최고의 기록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만 1억 7천만 장 이상을 팔아치워 RIAA에 따르면 그 어떤 가수보다 높은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틀즈는 빌보드 HOT100 50년 역사상 1위 싱글이 20곡으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가수로 기록되었고, 50여 곡 넘는 톱 40위권 싱글들을 만들어냈다. 비틀즈의 음반은 현재도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틀즈는 기록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비평가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밴드"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Grammy awards에서 7번의 수상을 비롯해 아이버 노벨로 어워즈, 영국 아카데미 작곡가 상 등에서 수상을 했다.

비틀즈는 첫 싱글 "Love Me Do / P.S I Love You"를 1962년 10월 4일 발표 했으며, 차트 17위까지 오르는 무난한 성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에는 두 번째 싱글 "Please Please Me"로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비틀즈는 이번엔 싱글형태가 아닌 10곡 이상으로 된 정규앨범을 내자는 제안을 하였고 결국에는 첫 정규앨범 《Please Please Me》를 1963년 3월 22일에 발표 하였고, 그 주 차트 6위까지 올랐다.(후에 1위까지 오른다.) 이로 인해 비틀즈는 역사적인 데뷔를 할 수 있었다. Please Please Me 발표 이후 비틀즈는 싱글 "From Me To You"로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되고, 뒤 이어 발표한 싱글 "She Loves You"는 차트 1위는 물론, 영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She Loves You"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두 번째 정규앨범 《With the Beatles》를 1963년 11월 22일에 발표했다. 그리고 싱글 "I Want To Hold Your Hand"를 선주문 100만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발표, 곧바로 차트 1위곡이 되었다. 그 후 비틀즈는 미국 진출을 노리며 미국에도 "She Loves You"와 "I Want To Hold Your Hand"를 차례로 발표, 곧바로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였다. 비틀즈가 출연한 에드 설리번 쇼는 시청자 수 약 7천 3백만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1964년 3월 16일 비틀즈는 싱글 "Can't Buy Me Love"를 미국에 발표, 단숨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그리고 1964년 4월 4일 빌보드 싱글 차트에는 1위에서 5위까지의 노래가 모두 비틀즈의 노래가 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비틀즈는 영국 뿐 만이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슈퍼스타가 되었다.

1964년 밥 딜런과 만남 이후 비틀즈는 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싱글 "I Feel Fine" 에서 역사상 최초의 피드백 주법을 시도했던 비틀즈는 이 앨범 4번 트랙 "I Need You" 에서 와와 페달 또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더 후, 크림,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 등의 음악가들의 하드록 사운드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13번 트랙 "Yesterday"에선 현악 4중주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곡은 기존의 팝에 새로운 예술성을 부여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Yesterday" 역시 싱글로 발매하여 1위를 차지했다.

1966년엔 싱글 "Paperback Writer / Rain"을 발매하였고 A사이드의 "Paperback Writer"는 1위를 차지했다. 이 싱글은 사이키델릭 록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특히 이 싱글을 통해 비틀즈는 그동안 인기에 비해 과소평가받던 연주 실력에 대해 재평가 받았다. (특히 조지 해리슨과 폴 매카트니의 연주실력에 대해선 끊임없이 찬사가 있었다.) B사이드 곡인 "Rain"은 테이프를 역회전 시키는 백마스킹 기술을 최초로 사용한 노래로 화제를 모았다.

1966년 8월 5일에는 7번째 정규앨범인 《Revolver》를 발매하였다. "Got To Get You Into My Life" 는 전면적으로 금관 악기(brass)세션의 연주로 이루어져 있다. "Yellow Submarine" 에는 수많은 기술적 효과음들을 삽입하기도 했다. 대중음악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Revolver에 속한 곡들은 위에서 말한 듯이 사이키델릭 록으로, 마약을 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 당시 방송에 금지곡이 되기도 하였다. .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에는 싱글로 따로 발매된 곡이 없으며 대신에 비틀즈는 수록되지 않은 곡인 "All You Need Is Love"와 "Hello Goodbye"를 차례로 싱글로 발매하여 두 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1967년 6월 25일, 비틀즈는 전세계 최초의 위성 생중계 방송 'Our World'에 출연했다. BBC 방송국과 기획한 이날 방송은 전세계 24개국에 생중계되었고, 비틀즈는 여기서 "All You Need Is Love"를 연주했다. 그 해 8월 27일,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수면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레논과 오노 요코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멤버들 간의 사이에 점점 금이 갔다. 11월 27일에는 미리 발표한 싱글 곡들과 미발표 곡들을 묶어 《Magical Mystery Tour》를 발매하였다. 이 앨범은 그 당시엔 정규앨범 형태로 발매된게 아니어서 소위 명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갈수록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비틀즈 사이키델릭 록의 가장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라 재평가받고 있다. 그들은 같은 해 동명의 영화 Magical Mystery Tour를 직접 제작,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아 제작하기도 하였다

1968년 발표한 비틀즈의 싱글 “Lady Madonna”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비틀즈는 조지 해리슨의 추천으로 인도의 리쉬케쉬로 가게 된다. 마하리쉬 요기의 가르침을 받게 된 비틀즈는 그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지만, 마하리쉬 요기의 부도덕함에 큰 충격을 받은 그들은 다시 영국으로 오게 되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오해로 밝혀졌다. 디팍 초프라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 해리슨이 마하리쉬 요기가 비틀즈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들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비틀즈는 인도에서 생활하며 1968년에 발매할 The Beatles 앨범에 수록될 곡들의 상당수를 작곡하였다. 여전히 순회공연을 중지한 상태에서 레논과 오노 요코와의 사랑은 더욱 발전되어 비틀즈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중기 이후로 비틀즈의 주도권은 레논에서 매카트니로 움직이고 있었다. 비틀즈는 점점 결속력을 잃어갔다. 그 와중에도 8월 매카트니가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을 위해 쓴 노래인 “Hey Jude”를 발표해 9주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Hey Jude”는 그 당시 빌보드 차트 1위에 가장 오래 머무른 노래가 되었다.

《The Beatles》

하지만 이런 기쁨 가운데도 레논과 멤버들간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비틀즈는 결속력 없이 멤버들의 솔로 곡들을 수록한 것처럼 느껴지는 앨범 《The Beatles》(통칭 White Album)을 1968년 11월 22일에 발표했다. 발매전 수록곡 문제로 멤버들이 서로 다투어 결국엔 2CD로 이루어진 30곡으로 발매되었다. 앨범 자켓은 두 버전이 있었는데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흰색 바탕에 The Beatles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평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평론가들은 그 당시 모든 록 스타일이 이 앨범안에 들어있다고 극찬을 했다. White Album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더블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앨범도 역시 싱글로 따로 묶여 발매된 곡이 없으며 “Revolution 1”은 “Hey Jude”싱글의 B사이드였던 “Revolution”을 편곡하여 만든 곡이라 할 수 있다. 7번 트랙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에서는 조지 해리슨이 절친한 친구인 에릭 클랩튼에게 기타 연주를 부탁했고, 2CD 6번트랙 “Helter Skelter”는 헤비메탈의 시초라 불리는 곡으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그 밖에 레논이 쓴 “Sexy Sadie”는 마하리쉬 요기를 비판, 풍자하는 내용의 곡이며, “Happiness Is A Warm Gun”은 세계의 악상을 절묘하게 합쳐놓은 곡으로, 비틀즈의 숨겨진 명곡으로 불린다. 비틀즈는 이 앨범에서 스카 스타일 (Ob-La-Di, Ob-La-Da), 블루스 록 (Yer Blues), 컨트리 (Rocky Raccoon), 발라드 (Dear Prudence), 포크 (Blackbird), 펑크(Funk) (Everybody's Got Something To Hide Except Me and My Monkey), 팝 (Martha My Dear), 하드 록 (Helter Skelter), 실험적인 음악 콜라주 (Revolution 9)까지 선보인다.

1969년 1월 17일 비틀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제로한 애니메이션 Yellow Submarine의 OST 앨범인 《Yellow Submarine》을 발표했다. 과거에 발표되었던 곡이나 보컬이 포함되지 않은 곡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곡은 몇 곡 되지 않았지만 인기가 높아 정규앨범으로 속하게 되었다. 비틀즈는 꾸준히 불화 상태에 있었으며 관계는 개선되려 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폴 매카트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긴 싱글 “Get Back”을 발표하여 1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맞이 했다. 그리고 레논은 “The Ballad of John And Yoko”를 발표해 1위를 하였다.

그 후 비틀즈는 “Get Back” 앨범의 녹음을 마치고 발매하려 했지만 폴 매카트니는 이 앨범이 마음에 들지않았고 발매가 보류되었다. “Get Back” 앨범이 보류되자 비틀즈는 사실상 마지막 앨범인 《Abbey Road》의 녹음에 들어갔고 서로 화합된 모습으로 녹음을 무사히 끝마쳤다. 그리고 애비로드 스튜디오 앞에서의 자켓촬영을 마친 후 1969년 8월 18일에 Abbey Road가 발매됐고 차트 1위를 차지하였다. 무그 신시사이저를 폭넓게 사용한 이 앨범은 비틀즈 앨범 중 가장 세련된 앨범이라 여겨진다. 특히 이 앨범의 백미인 일련의 짧은 곡들로 이어지는 메들리(트랙 9번 부터 16번까지, 일명 '애비로드 메들리')는 록 음악에 드라마틱한 오페라적 요소를 결합시켜 많은 음악팬들을 매료시켰다. 앨범의 마지막 곡인 “Her Majesty”는 최초의 히든트랙이라 여겨진다. Abbey Road의 1번 트랙과 2번 트랙인 “Come Together”와 “Something”은 따로 싱글로 발매, 두 곡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Something은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노래 중 최초의 1위곡이다. 조지 해리슨은 이 앨범의 “Something”과 “Here Comes The Sun”을 통해 자신의 커다란 음악적 성장을 보여줬다. 그리고 링고 스타 또한 “Octopus's Garden”으로 나름대로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계속되는 성공 속에도 비틀즈의 결속력은 계속 떨어져 불화로 이어졌고, 레논은 비틀즈보다는 오노 요코와 활동하기를 원했다. 비틀즈는 사실상 해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멤버들은 각자의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카트니는 비틀즈를 놓지 않았고 보류되었던 앨범인 Get Back을 조지 마틴이 아닌 필 스펙터에게 프로듀싱을 맡기며 결국에는 《Let It Be》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1970년 5월 8일에 발매 하였다. 싱글로 “Let It Be”를 발표, 1위를 차지하였고 후에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싱글로 발매하여 마지막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유명한 애플 레코드의 옥상 공연이 포함된 영화 Let It Be가 개봉하였다. 《Let It Be》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도 여전히 멤버들 간에 사이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멤버들은 이미 각자의 솔로 앨범을 발매하였다. 언론에서도 비틀즈의 해체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리고 결국 폴 매카트니가 1970년 4월 10일 데일리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해체를 공식발표하며 비틀즈는 공식 해체되었다. 그 이후, 존레논은 1980년 뉴욕 집 근처에서 총에 암살을 당했고, 2001년 해리슨은 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